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32호 / 05월 09일

“중국 세계공장론”의 虛와 實

1. 개요

-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중국이 과연 “세계의 공장”인가, 혹은 조만간 “세계의 공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세계의 공장”이란 19세기 초의 영국이나 20세기 초의 미국과 같이 세계 제조업의 생산 및 무역에서 특정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을 의미함.
- 특히 최근의 “세계의 공장” 논의는 중국산 저가 제조업 상품의 제3국 수출 확대로 인해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확산이 우려된다는 일부 주장의 근거 혹은 반론의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2.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과 요인

-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 후발국의 잇점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 현재 세계 제4위의 제조업 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1990~2001년 기간 중국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제조업 대국으로 부상함.

- 의류, 완구류 등 단순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품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화학, 조선 등 전통제조업 분야의 발전도 두드러지고 있음.

□ 또한 중국산 공업제품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1년 세계 공산품 수출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EU(17.0%), 미국(13.5%), 일본(8.3%)에 이어 세계 4위(5.3%)를 기록하였음.
- 1990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출 비중은 5.7%로 일본(35.5%), 홍콩(9.9%), 대만(8.0%), 한국(7.8%)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01년에는 일본(18.6%)에 이어 11.9%로 2위를 기록하였음.
- 중국산 제품 중 세계 시장점유율이 1위인 제품도 라이터, 시계, 비타민, 전화기, 오토바이, 완구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1>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수출액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1990년	비중	2001년	비중
아시아	7711	100.0	20096	100.0
일본	2751	35.5	3737	18.6
중국	443	5.7	2398	11.9
한국	606	7.8	1355	6.7
대만	620	8.0	1164	5.8
홍콩	756	9.9	1820	9.1
그중:중계무역	482	6.2	1632	8.1
싱가폴	375	4.6	1026	5.1
그중:중계무역	143	1.8	506	2.5
아세안 4국	451	5.8	1794	8.9

자료: WTO통계에 의거 산출

<표 2> 2001년 제조업 주요 무역국의 수출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국가	GDP	총수출	제조업 수출	세계제조업 수출내 비중
세계	313000	61550	44769	100.0
EU	60000	8741	7604	17.0
미국	102000	7308	6024	3.5
일본	42000	4035	3737	8.3
중국	12000	2662	2358	5.3
캐나다	6772	2599	1611	3.6
한국	4222	1504	1355	3.0
러시아	3100	1031	252	0.6

주: EU의 GDP는 2000년 수치임. 수출에는 내부무역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 세계은행 및 WTO통계에 의거 산출

□ 중국 제조업의 빠른 성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중국 자체의 비교우위 외에도 외자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중국은 세계 2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매년 500억 달러 정도의 외자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총투자의 10% 내외에 달하는 규모임. 특히 이 가운데 65%가 제조업 분야에 투자되고 있음.

- 수출품의 50% 이상이 외자기업에 의해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함.

3. 평가 및 전망: “세계공장론”과 디플레이션 수출 논의

□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 차원의 국제분업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임.

- 중국내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기보다는 세계 제조업 중

심지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DRC 王夢圭 주임, 거시경제연구원 劉福垣 부원장)

-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제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더욱 분업화되고 있어, 과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려움.
- 중국은 국제분업에서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우위가 여전히 현존함.

□ 중국의 당면 과제는 실업문제 해소와 국내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지속이며, 수출 확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 또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세계경제의 국제분업구조 내에서 중국의 역할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것임.

□ 한편,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산 저가 수출품의 확대로 인해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임.

- 첫째, 일부 제품의 경우 최저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은 2%, 세계 가중평균은 3% 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음.
- 둘째, 중국 수출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집약형 전자제품의 지난 5년간 가격은 평균 7%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일본, 미국, 한국 등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설비 등의 제품이나 반도체의 가격은 같은 기간 각각 35%, 45%나 하락하였음.
- 셋째,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 특히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넷째,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의 주요인은 수입품 때문이 아님. 일본의 GDP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고, 그 중 중국산 수입품은 1% 밖에 안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생산 확대 및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 증대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지는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함.

-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기술우위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